

개인기도 공중 기도 바로 하기

성경말씀: 마6:5-8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간청하는 것

왜 구하는가? 그분의 나의 창조자, 주인이시므로 구한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그런데 기도에도 형식이 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겠는가!(눅11:1)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으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하다(고전14:7-9). 시간과 에너지 낭비. 그런데도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기도에는 개인 기도와 공중 기도가 있다.

개인기도

개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이다(6).

예수님은 구제든(1-5) 기도든 은밀히 해야 아버지의 보상을 얻는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야 응답이 있고 천국의 보상이 있다. 열심히 기도해도 보상과 응답이 없는 기도가 많다.

1.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의 기도(마6:5; 눅20:47)

위선의 기도란 무대 위의 연극배우처럼 연기하는 기도, 기도에 진실이 담겨 있지 않다(천주교회의 기도문 낭독).

기도의 대상이 사람(관객)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자마자 기도하지 말고 인사하며 교제하라.

왜 기도하는가? 보여 주기 위해서

2. 헛된 반복 기도(마6:7)

반복 기도는 필요하다(눅18:1-8), 과부의 기도, 간구할 것을 놓고 꾸준히 반복해서 하는 기도 그런데 헛된 반복으로 기도하는 것은 No!, 중과 천주교인들, 마음에는 전혀 믿음이 없으면서 입술로만 이말 저말 끝어다 붙이는 기도, 방언 기도,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3. 자랑하는 기도(눅18:11), 기도는 자랑이 아니다. 간구이다.

4. 보고 형식의 기도 No!(눅18:12): 보고하려 하지 말고 소원을 아뢰라(빌4:5-6). 절제와 함께

5. 소리를 내는 기도를 해야만 한다: “묵상기도는 삼가야 한다. 식사할 때와 교회에 막 도착할 때만 한다.” 묵상기도는 짧게 해야 한다. 길어지면 잡념이 들어간다. 묵상기도는 기도의 고수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중하기 위해 소리 내어 기도해야 한다(렘33:3).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흠정역), “부르라”,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은 앞뒤 문맥상 이스라엘의 회복(바빌론, 최종)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개역)

6. 자신의 죄책감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드리는 기도: 즉 보상 심리로 드리는 기도

7. 응답이 내려오지 않으면 기도의 강도나 빈도를 높여 하나님을 압박하는 기도 행위

새벽기도 작성, 기도할 때마다 현금봉투에 뺏뺏한 지폐를 빼곡하게 넣어 가져오거나, 아예 기도원에 짐 싸들고 올라가 여러 날의 금식을 선포하며, 천일기도를 선포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 조폭의 문신과 비슷한 행위, 하나님은 다른 무속의 신들과 같이 희생 행위를 높여 압박한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희생의 강도와 빈도를 높여 하나님을 압박해서 자신이 얻어내고 싶은 욕망을 채우려 하고 있다. 무지하고 가증스러운 일이다.

8. 방언 기도, 시작부터 끝까지, 현 시대 방언은 성경의 타언어 선물과 다르다. 불필요하다.

9. 기도 받으러 가는 것: 교인들 가운데 능력 있는 목사(부흥회 강사)에게 “기도를 받으러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경우 기도는 어떤 능력자의 전유물로서, 그가 나누어주는 영적 선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 이것은 이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이 반영된 표현이다.

행여 어려운 일 때문에 더불어 합심해서 기도할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기도를 당부한다는 의미라면, “기도를 부탁한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불신자가 점쟁이에게 ‘점괘 받으러 가는 식’으로 ‘기도 받으러 간다.’고 하면 믿음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10. 쓸데없는 기도 부탁: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거론하며 구원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
대부분의 의식주 문제 등의 기도는 본인이 해결하면 된다. 심지어 감기까지 부탁, 개 아픈 것
11. “기도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에 대해 의사를 결정해 달라고 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응답 받고 말씀드릴게요.” 대단히 위엄한 말이다. 이런 이것은 종교적 위선에서 나온다. “생각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12. 새벽 기도는 다른 때의 기도보다 더 응답이 잘된다. No!
시46:5 인용, 막1:35
“새벽 기도한 사람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새벽기도의 사람들이었다.”(E.M 바운즈).
어느 목사의 주장: 우리 겨레는 원래 새벽에 친숙한 전통이었다. 조선(朝鮮)이란 이름 자체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 곧 새벽의 고요함을 담은 이름이다. 옛날 여인네들은 전쟁터에 나간 남편의 무사귀향을 위하여, 과거 보러 간 아들을 위하여 꼭두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빌기를 거듭하였다. 이런 새벽의 전통을 교회가 이어받아 새벽기도회가 생활화 되었다. 세계에는 나라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 한국교회처럼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없다. 새벽기도야말로 한국교회의 자랑이요 힘의 바탕이다.
성경은 어느 때에 기도하면 더 효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영 안에서 기도하면 된다.
때, 장소, 자세 등은 상관없다.
13. 새벽 기도 관련해서 새벽 QT 및 기도의 효력을 강조하는 사례도 있다.
14. 자기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약4:2-3)

공중 기도

예배에는 개인 예배와 공예배가 있다. 개인기도, 공기도

공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와 민족과 사회의 필요를 위한 기도, 헌금, 말씀 선포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 교제
우리 교회 공예배에는 두 번의 기도가 있다.

1. 예배 시작하면서 드리는 기도: 이것은 예배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다.
2-3분 정도 짧게 해야 한다: 한 주 동안의 인도와 보호 감사, 오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간구
2. 대표기도: 하나님 찬양(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아들 예수님, 지난 1주 동안의 은혜), 교회와 민족의 필요 간구, 병든 자, 선교, 예배 시종 주관 간구, 5분 정도
3. 두 기도 모두 아버지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4. 공중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 지양해야 할 것들: 교회용어사전
 - A. 기도 서두에 ‘할렐루야’를 넣거나 성경구절 암송을 하는 것, ‘할렐루야’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뜻으로 시(詩)나 찬양에서 환호할 때 쓰이는 표현이다. 즉, 이 말은 예배나 절기에서 주께 찬양하고자 권면할 때에 사용되는 말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인데 그런 기도의 첫 머리에 하나님을 향해 ‘주를 찬양하라’는 환호의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꼴이니 부적합하다.
 - B. 기도 첫 머리에 교훈이 될 만한 성경 구절을 낭송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다분히 성도를 의식한 기도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한 처사이다.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다시 기도의 첫 머리에 하나님께 되돌려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 C. 기도의 형태를 빌려서 남을 가르치려는 기도: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빌려서 남을 가르치려 하는 것, 자기 이념이나 철학을 관철시키고 남을 공격하는 기도
 - D.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기도임에도 마치 설교하듯이 하는 기도, 자기의 성경 지식을 성도에게

- 과시하려는 듯한 기도도 있다. 이 모두가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주의가 필요하다.
- E. 자기 과시를 위한 기도: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드리는 상투적 기도, 자신의 죄와 유한한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 철학적으로 드리는 기도
 - F. 광신적인 기도: 주여 삼창, 감정 조절을 못하고 광신적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한 기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도취,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전14:23-24).
 - G. 특히 합심 기도를 통성기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 아니다. 성경에는 모인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특히 주여3창 같은 식으로 기도한 사례가 없다.
 - H. 왕상18:26, 28, 왕하5:11, 질서가 무너진 곳은 마귀의 장소